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 정토사 약사불 약병 들고 염주장식 '특이'

##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서울 경창동 정토사(주지 설산) 법당 앞마당에 있는 약사여래 부처님은 여느 부처님과 다른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인도나 동남아 국가의 불상을 연상케 한다.

이 부처님은 노년에 오래 방치돼 있으면서도 대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머리는 나발에 육계가 유난히 뾰족하게 솟아 있다. 사각진 상호에는 검은 눈과 입술을 작고 가늘게 처리하였지만 살짝 보이는 미소가 자비로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간에는 백호가 뚜렷이 나타나 있으나 목에 보이는 상도가 없어 여래불임이 확실하다. 법의는 통견양식이고, 두껍게 처리했으며 주름은 세밀하다. 노출된 가슴에는 군외의 매듭이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손에는 보병(寶瓶·약병)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로 추정되나 다른 여래상에서 볼 수 없는 염주 목걸이 장식이 특이하다.

대개 부처님은 완벽한 인격체로서 조금의 장식도 없이 그 본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 보살과 달리 영락 등의 장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석불좌상인 경우는 약병보다는 약항을 들고 있는 것이 흔한데 이 부처님은 보살상처럼 약병이 목걸이 장식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불상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어깨와 무릎의 폭이 거의 같은 것과 옷주름이 좌우대칭으로 형식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형식과 조각

### 보존상태 양호한 편 상도 없어 여래불 추정 나발에 육계 높이 솟아

기법이 세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토사 주지 설산스님은 "37년전에 내가 이 절로 왔는데 그때도 이 자리에 모셔져 있었다"며 "한 보살이 논바닥에 굴러다니던 부처님을 절로 모셔왔다는 말을 신도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윤기석 기자  
(wkim@buddhapa.com)



◇서울 경창동 정토사 약사불.

## 담양 미륵굴 석불은

고증: 정영호 박사



그위에 복발형의 육계를 올려놓았다. 담당한 모습으로 보아 고려전기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 풍만한 상호 고려초 조성 지방문화재로 손색 없어

법외는 양쪽 어깨를 통견으로 두껍로 새겼다. 의문(衣紋)은 배 아래가 등상등상 마무리돼 있다.

비록 눈이나 콧등 손목 등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있으나 상호는 원만하고 풍만한 양감이 주목된다. 지방문화재로 손색이 없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 IMF 극복 신행수기

부처님의 기피

신현덕 (수원 장안구 정재동)

"회사 사장이 어려우니 집에서 좀 쉬어야..." 지난 1월, IMF한파가 나에게도 닥쳐왔다. D제약회사에서 부장으로 열심히 일하였고, 오직 한길 제약회사에서 23년, 앞도 안 쳐다보고 걸어왔던 내가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 되었다. 올해 대학과 고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들에게 한창 학비가 들어가야 할 때인데, 실직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이었다. 아내에게 알릴 수도 없고 혼자 가슴앓이를 1주일정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런 기정사실이 되어 버린 일이다. 가족을 모으고 회의를 했다. 가장이 흔들리니 가족들은 더 불안했었다. 모두가 맡은 바 본분을 잘 지키고 열심히 책임을 다하자고 약속을 했다.

평소 명랑하던 얼굴에 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화상 신행사 주지스님께서 격정스러워 하셨다. 실직을 한 후 절에 열심히 다녔고 법

아내는 평소 취미로 배워 익혔던 홈패션 솜씨를 살려 봉제공장에 미싱사로 취직을 했다. 두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며, 첫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다니고, 둘째는 장학생이 되었다.

처음 해보는 고된 막노동은 군대생활보다 더 힘이 들었다. 땀과 눈물 속옷까지 다 젖어본 일은 처음이었다. 아파트 현장 일들은 3D직종이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 하루종일 새벽 6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참 먹는 시간을 빼고도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하고 나면 일당이 3만2천원. 저녁에 돌아올 때는 내일 이렇게 아드면 아마 출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고맙게 먹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중에 새로운 힘이 속속 솟아 나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벽기도를 하고, 어제 힘든 것은 잊어 버리고 새 기본으로 출근을 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 23년간 다니던 직장 나온 뒤 절망하지 않고 '100일기도' 막노동 한달후 새 직장 얻어

회와 수련회 때 열과 성의를 다하여 포교에 앞장섰다. 주지스님과 상담을 하고 1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지성껏 하루에 두 번, 새벽 4시와 밤 9시에 2시간씩 기도를 했다. 일요 가족법회에 참석해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며 우선 마음을 안정시켰다. 어려움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한 것으로 아껴서 생활을 하다보면 기도가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다.

"항상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생활하면 부처님께서 모두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는 스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기도에 임했다. 처음 한달 정도 기도를 하며 직장을 찾아 다니기를 10여군데. 그러나 모두 회사사장이 어려운 탓에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나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너무나 많이 걸어서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친구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수월 영종지구 모 아파트 현장인데 막노동 일이니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물론 하겠더라 패히 수락을 했다.



그림·문병성

지 83일째, 막노동을 한지 45일이 되는 4월 중순 어느날 드디어 W제약회사 부장직리에 새롭게 취직이 되었다.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아파트 현장에서 받은 월급과 봉제공장에서 받은 아내의 월급을 고스런히 그대로 가지고 신혼사로 갔다. "스님! 이 돈은 너무나 힘들게 번 돈이라서 우리가 한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봉사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세요" 하고 주지스님께 드렸다.

부처님 전에 나의 서원을 고한다. 이 몸 다할 때까지 부처님법을 배우고 행하며 입을 전하는 포교사로서 이 목숨 다 바칠 것을, 세계와 중생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을,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모든 기업들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피주시길 것을.

# 역·사·속·스·로·떠·나·는 죽·음·기·행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 고은 추천사에서 -



저자 : 맹란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달인 풀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 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황수인 소강철과 서희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 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 5.5

도서출판 세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 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①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점이 있습니다. 02)732-8552

남산의 불산에 보여 웃네